

제426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30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2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2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2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2

(14시01분 개의)

○소위원장 민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평소하고 달리. 그래서 차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국가유산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2차관 소관, 그러니까 가벼운 걸 빨리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1차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하

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의 수용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짧게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들 두 시간 안 넘고 끝내 보자 지금 이런 말씀들이시거든요. 맞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사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은 뒤로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석 중인 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 정부 측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꼭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4시04분)

○**소위원장 민형배**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런데 인사를 좀 먼저 하셔야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민형배** 천우정 수석님 오신 거 다 알고 계신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심사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1.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 강화.

국가지정문화유산보유사찰 상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99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2쪽입니다.

2. 국가유산교육 활용진흥.

국가유산 방문 지원을 위한 교통·숙박 편의 제공, 전통시장 이용 확대 등을 위해 150억 원 증액, 찾아가는 국가유산 교육체험관 확대 및 지역거점별 생애주기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8억 원 증액.

3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운영 횟수 확대를 통한 사회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억 원 증액, 국가유산주간 사업 확대 운영으로 국가유산 복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

4쪽입니다.

학생, 지역주민,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가무형유산 향유 확대 및 관심 제고를 위해 2억 원 증액.

3. 국가유산진흥원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 및 국가유산 복지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31억 원 증액.

5쪽입니다.

4.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위해 개발비 5억 원 증액.

5.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불교중앙박물관의 전시관 및 수장시설 복구를 위해 5억 원 증액.

6쪽입니다.

6.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진주성 디지털 복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증액, 서울 석촌동 고분군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설계비 6000만 원 증액.

7쪽입니다.

7. 무형유산보호.

구덕민속예술관(부산) 건립을 위해 공사비 33억 원 증액.

8. 국립무형유산원 운영입니다.

지역의 전승자 활동기반 구축, 콘텐츠 제작 및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3억 원 증액.

8쪽입니다.

지역순회 방식의 ‘굿GOOD보러가자’ 특별공연을 위해 3억 원 증액, 전승취약 종목 전승자 작품 구입을 위해 1억 원 증액.

9쪽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등 1억 8000만 원 증액.

9.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운영.

조선왕조실록박물관 보존연구동 증축을 위해 설계비 9억 원 증액입니다.

10쪽입니다.

10. 궁궐유산관리 운영입니다.

경복궁 야간관람 확대를 위해 14억 원 증액.

11.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입니다.

공무직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4억 4600만 원 증액입니다.

11쪽입니다.

궁능원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입니다.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50억 원 증액, 조선왕릉 향유 활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억 원 증액입니다.

12쪽입니다.

13. 디지털행정 지원입니다.

국가유산 분야별 생성형 AI 생태계 기초 연구 등을 위해 12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최보근 차장님,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총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정부 입장은 대부분 수용하는데요, 3건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그 3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1쪽에 있는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 강화, 내역사업명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유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사실 국가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찰뿐만이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표현을 좀 빼고 국가유산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유지관리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사찰이라는 말 대신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국가지정문화유산보유자.

○**소위원장 민형배** 보유자?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유자.

○**소위원장 민형배** 소유자?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유자 상시 유지관리 지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예, 소유자.

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4쪽의 ‘찾아가는 국가무형유산 송파산대놀이 출두요’ 이 사업은 사업 예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한테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특정 종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보통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소위원장 민형배** 무슨 논의를 하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 땐 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중복인지?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찾아가는 국가유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쪽의 사업 내역으로 넣어서 그런 기준에 있는 지원체계에 따라서 공모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송파산대놀이 출두요’라는 명칭보다는 기준에 있는

저희 국가유산 체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걸 추가해라?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증액을 추가해서……

○**소위원장 민형배** 기존에 있는 사업은 뛅니까? 어떤 사업에다 이걸 추가하는 게 맞습니까? 얼른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검다리, 이어지교라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유산 교육 사업인데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실무진께서 지금 바로 이것을 어디다가 붙이면 될지를……

그러니까 수용은 하는데 다른 항에다가 이걸 갖다 붙이자는 얘기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걸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리고 10쪽입니다.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관람지원인력 운영은 궁능 내 관람지원인력 배치·운영을 통한 서비스 역량강화로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여기 4억 4600만 원 증액인데 이 내용이 궁능본부에 일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명절상여금하고 가족수당 지급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유산청에 공무직이 굉장히 또 많고요.

그래서 이 궁능에서만 일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절상여금을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것은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궁능 공무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아닌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물론 매표소에 계시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이런 분들이 대상이긴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공무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 비해서 특별히 이분들이 이렇게 명절상여금이나 가족수당 지급을 또 더 해 줄 만큼 그만큼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민형배** 하여튼 이것 수용 곤란하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측 의견 다 말씀하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 토론 순서……

○**임오경 위원** 한 건 한 건씩 하나요?

○**소위원장 민형배** 잠깐만요. 더 있는 모양인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자료 6쪽의 국가지정유산보수정비, 진주성 디지털 복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이것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진주성 디지털 복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진주성 디지털 복원, 석촌동 야간 경관, 수용으로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이것도 수용, 석촌동 고분군 야간 경관……

○**임오경 위원** 이것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발굴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실은 지금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제대로 경관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내년도 보수정비 사업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곤란하다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6000만 원짜리는 수용 곤란, 위의 2억 5000짜리는 수용?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 건 한 건씩 해요? 아니면……

○**소위원장 민형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수용으로 돼 있는 건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지나가고 정부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차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2024년에 2025년도 예산을 다, 저희가 증액·감액 예산이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마지막에 동결로 했고 그리고 202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2024년 연말에 저희가 심의를 다 거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은 좀 더 필요하고.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어떤 게 좀 그런지.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임오경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추경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사항이, 작년 12월하고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작년에 증액을 다 시켜 놓고 심의를 다 거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던 예산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외적인 것,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같이 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시켰던 것, 예를 들어서 청와대재단 관련돼서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건 문체부에서 하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국가유산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예산 심의가 다 끝난 것에서 몇 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감액되는 게. 그것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거고,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들어온 것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6페이지였나요,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 그리고 아까 위쪽은 또 수용을 갑자기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비하고 연내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갑작

스럽게 들어 왔을 때 지방 매칭사업이 중간에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인을 좀 하고 해 주셨으면 해서……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예전에 우리가 증액 심사할 때 이미 심사를 했던 거라면, 그래서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굳이 여기서 또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꼭 그런 건 아닌데 편의상 그 구분을 좀 해 주시라는 뜻인데 혹시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그 예산은 완전히 무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건 그냥 진행의 편리를 위해서……

이 중에 완전히 새로 들어온 게 뭐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파악한 것은 1번만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증액하려고 했던 거고요.

○**소위원장 민형배** 나머지는 다 새로운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에서 새로……

○**정연욱 위원** 나머지가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이번 2차 추경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다음번에 2차관 소관, 1차관 소관도 미리 그것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달라고 전달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할 텐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금 우리 문체위원 중에 예결위 누가 들어가 있나요, 여야 다 해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조계원 위원님……

○**김승수 위원** 우리 당은 누가 들어가 있나?

차장님, 여기 지금 2차 추경안 중에 사업이 중복, 그러니까 동일 사업에 예산 증액 규모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증액 규모가 다른 경우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증액이 얼마입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500억 내외입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 이 사업들 중에서 지금 정부안에, 정부 추경안 할 때 신청했다가 거기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승수 위원** 아니,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차 추경에서도요? 1차 추경 때는 정부안에 저희 증액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증액으로 우리가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소위원장 민형배** 1차 때는 아예 없었지요, 이런 기회가?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1차 때는 없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1차 때는 우리 문체위 심의 자체가 없었고. 이번에 2차 추경 하면

서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증액 사업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증액 신청한 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된 게 있을 테고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우리 증액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서 정부안에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위원들 증액 요구 들어온 사례가 뭐가 있느냐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실 저희가 기재부 통해서 정부안에 증액으로 담으려고 했던 사업이 2쪽에 있는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아,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경기를 회복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 저희가 설명도 하고 증액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정부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보면 정부안에 안 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2번의…… 1번은 말할 것도 없고, 저번에 우리가 증액시키려 그러다가 나중에 민주당에서 예결위에서 삭감안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마는 2번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정부안에도 반영시키려고 그러다 반영이 안 됐는데 거기에는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저번에도 보면 실컷 이틀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문체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생각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 가지고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결위 가 가지고 전혀…… 진짜 말짱 도루묵이 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증액안으로 예결위 간다 하더라도, 전에처럼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국가유산청에서 반영시킬 예산이 거의 한정적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 수용, 수용, 수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 또 예결위에 우리 문체위원회도 계시니까 꼭 반영시킬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앞서 배현진 위원 송파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전체 내역사업을 통해서 총액으로 예산이 잡히면 지자체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 아니에요, 보면?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공모라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뒤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된 사업, 그때도 어렵게 탈락된 사업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때 어렵게 탈락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이 안 되고 중간에 추경 때 특별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쑥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끼워 넣기 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는 거지요. 물론 예결위 가서 통과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기준

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안에 안 맞고…… 내년도 본예산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안 협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신청을 하면 배려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경안에 이것저것 다 끼워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수용 곤란에서 수용으로 했던 진주성 디지털 복원, 문화재 디지털 복원 사업 이거는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 사업은 보수정비 사업으로 국가유산이 있는 경우에 그 국가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진주성 디지털 복원 사업이 언제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가유산청이 했는데 저번에 본예산 신청할 때 이 사업이 들어왔었던가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복원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신청을 하면 굉장히 엄격한 심의 과정, 선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해 주고 어떤 거는 갑자기 그것도 추경에 들어와서 해 주고, 이것도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진주성 건은 과거에 예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보수정비 사업 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보수정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복원이잖아요.

전체적인 목은 국가유산보수정비에 있지만 그중에서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복원을 하는 것들과 별개로 디지털 복원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디지털 복원이 필요한 사업들, 주요 문화재들 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디지털 복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밑에 배현진 위원 것은 우리 당 위원이지만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동일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참 전재수 위원님 위원장님 하시다 지금 장관으로 가셔 가지고 자꾸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원칙을 한번 따져 보자는 거예요.

구덕민속예술관 건립 공사비 증액인데 지금 이게 진도가 어디까지, 현재 공사 중인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 33억 증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도가 보조금 규정에 있는 것 아닌가. 33억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정부 지원액이 총 38억입니다. 그런데 5억이, 이미 설계와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그게 빨리 진행이 되려면 올해 추경에라도 착공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면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수용 의견을 낸 겁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뒤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전승 지원 예산이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행사성 사업 같으면 행사성 사업대로,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같으면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지금 국립무형유산원이 전라도 쪽에 하나 있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전주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전주에 있지요? 분원은 어디에 건립을……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밀양에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는데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실시설계는 이미 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이 넘어서요, 그래서 예타 대상이 되는 바람에 총사업비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미만으로 맞췄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하려면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500억으로 높였다가 예타 대상이 되니까 예타 대상에서 빼려고 또 사업비를 조정해서 500억 이하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경북궁 야간관람 저기는 뭐니까? 14억이나 증액하는데 얼마나 더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14억을 증액시키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저희가 49일을 개방하고 있는데 60일을 추가로 더 개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한 겁니다.

○**김승수 위원** 현재 그러니까 49일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1년 49일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60일 하면 100일 넘네. 109일이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100일 정도……

하반기에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야간 개방을 하면…… 지금 야간에 경복궁을 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방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면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만큼 주변의 야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수용하게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원칙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우선 우리가 협심 쓰게 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은 잘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결위에서도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런 점에서 이전에 했던 것들 지금 구분이, 첫 번째 것만 빼놓고는 다 새로운 거라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예결위에 가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성립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세게 하시는 거니까 처음에 정부 쪽에서 이것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정부야 사업을 계속 많이 하면 좋으니까 다 받아 주시는 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계원 위원 아침에 예결위가 있었는데요,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안 중심으로는 의견 개진을 받겠지만 그리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하겠지만 가급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들이 반영될 확률은, 많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로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런데 예결위가 그렇게 얘기하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왜 하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고민하고 이래야 돼서……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취지에 걸맞은 걸로 민생 회복이나 이쪽에 방점을 찍어 달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여기도 보면 민생 관련된 게 꽤 있는데……

 지금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조계원 위원 무겁지요.

○임오경 위원 일단 30분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갔다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논의가……

○소위원장 민형배 얼른 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논의를 길게는 못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024년에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심의를 거쳤던 사업들이 지금 올라온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2025년도 그 당시 사업, 저희가 추경으로 올리자고 했었잖아요, 작년 12월 10일 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작년도에 증액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임오경 위원 예. 여야 증액이 안 된 거 추경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왜 그러면 추경으로는 올라온 게 없나요? 작년 사업이 왜 올라온 게 없나요? 지금 새로운 사업만 올라왔다고 하니까.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거쳤던 사업들이 아예 없었나요?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논의했던?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추경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까 1쪽에 있는 사업만 작년에 증액 제기한 걸로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형유산보호의 구덕민속예술관 건립, 그 다음에 무형유산원의 글로벌 무형유산축제, 전승공예품 작품 구입 이 3건……

○조계원 위원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7쪽의 7번이고요, 그다음에 8번도 작년에 증액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8쪽의 두 번째 전승공예품 지원, 전승자 작품 구입 지원비 1억 이것은 작년에도 증액을 하려고 했던 내역들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결국 감액 예산으로 통과되면서 예산소위에서 증액하기로 했던 것들이, 그때 얘기가 결국은 그것 전체적으로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문체부도 해당이 되지만—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빠진 목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작년에 예산 증액하려고 하다가요?

○조계원 위원 예.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게 지금 말씀드린……

○**조계원 위원** 증액 편성된 것 중에 지금 여기 빠진 것은 없어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많습니다.

○**조계원 위원** 많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조계원 위원** 그것은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체위에서 어렵게 증액 심사를 통과했던 것들을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이유는 이번 2차 추경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는 주제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의결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기재부하고 논의하면서 방어를 못 했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번 추경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는 대부분 사업들이 그 목적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거는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1쪽의 내용을 포함해서, 가셔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국가유산청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증액 내역서가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증액 동의해서—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요—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증액해서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급한 예산, 민생 회복 예산 때문에 못 넣었다 이 얘기로 제가 이해돼요.

○**소위원장 민형배**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김윤덕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소위원장 민형배** 지난번에 증액했던 것들 중에 다시 여기 포함돼 있는 것은 4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번 추경의 목표하고 부합하지 않아서 뺏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번 국회에서 증액된 내용을 몇 건을 넣어야 되는데, 10건이면 10건, 몇 건을 넣어야 되는데 이 4건은 넣고 못 넣은 것은 못 넣고 이 예산은 어떠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넣었고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 위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생 회복에 반대하는 위원들입니다, 여당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얘기가 뭐가 안 맞잖아요. 말은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뺏으면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증액된 거 못 넣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원칙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틀리게 한 거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그렇게 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4년에 심의가 다 끝난 것을 갖다가…… 증액, 감액이 있었는데 저희

가 추경으로 올리기로 했으니 일단 올라왔던 것을 올려 주시고, 무조건 민생회복지원금이 2차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양문석 위원** 실장이 대답하세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 보세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말씀드린 대로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들을, 기재부에 협의가 올라갔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았고, 지난해에 증액시키지 못한 사업들은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최대한 담으려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게요. 일단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요지를 정회한 사이에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준비하셔서 회의를 다시 속개할 때 그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간단하게 보고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국힘 위원님들 팬창으시지요?

○**김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런데 갔다가 금방 오실 거지요?

○**김승수 위원** 한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소위원장 민형배** 30분이면 너무 길어요. 안 돼요.

○**정연욱 위원** 저는 안 갈 거여서……

○**소위원장 민형배**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형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그거 요약부터 한번 해 주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난해 상임위에서 증액을 의결했던 전체 예산은 960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몇 건이었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41건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41건 960억 원인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중에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5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5건이고, 나머지는 다 새로 들어온 거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증액하려고 그러다 못 한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부안에 담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내년에 담기 어려운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소위원장 민형배** 내년에 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년에 담는 것보다는 시급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건 이번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그렇게 했을 때 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이번에 새로 서면 질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고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는 거의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그냥 다 수용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것만 지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했고요.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 상태로 아까 심의한 대로, 심사한 대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 아까 공모사업은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원장 민형배** 몇 번이요?

○**임오경 위원** 4페이지요.

지방비 매칭사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원칙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4쪽의 송파산대놀이 전승 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항목을 다른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는 무형유산원 무형문화유산 정검다리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넣으면 전체 예산 항목과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무형문화유산 정검다리교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거기에 기존에 6억 4500만 원이 있는데 2억 원을, 이 예산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그렇게 편성을 한다는 뜻인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이제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내역사업들을 틀을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기준에 따라서……

○**김승수 위원**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헛심 안 빼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건 절대 잊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위원님.

○**소위원장 민형배** 지금 두 분 말씀 회의록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민형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완희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2차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자료 2의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위 자료는 위원님들의 수정 요구안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중 첫 번째 관광자원 기반조성에서는 내역사업인 지역관광자원 개발에 신규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관광 경관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5억 원을 증액하는 안, 두 번째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 신규로 내역사업 부산 디지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84억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다음 5쪽,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중 내역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024년 8월 정규직 전환된 2800명의 처우개선비로 52억 원을 증액하는 안과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 2개의 안입니다.

다음 6쪽,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중 신규로 내역사업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지원을 하는 안으로 20억 증액안과 13억 증액안이 있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양성지원에서 전임지도자 인건비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내역사업 후보 선수 육성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다음 7쪽,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에 신규로 내역사업 국립스포츠공원 조성을 편성

하여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아래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에서는 금번 추경안에서 843억 2700만 원으로 과도하게 감액된 스포츠기업 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여서 하반기 스포츠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421억 63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안입니다.

다음 8쪽, 태권도 진흥에서 내역사업으로 춘천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14억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9번, APEC 기념 한중 대학생 3×3 농구 페스티벌 개최는 신규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다음 9쪽, 2025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이것도 신규로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15억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증액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 강화 중 내역사업인 국민관광 지원 중 금번 추경안에 89억 원이 반영돼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은 사업의 수행 방식 변경 등을 고려하여서 57억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진종오 위원님 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내관광 역량 강화의 신규 내역사업인 숨-핫 제작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안입니다.

다음 12쪽,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에 신규로 내역사업인 항공사고 위기 극복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서 35억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다음, 13쪽과 14쪽은 부대의견으로 지자체 이관 사업에 대한 대한체육회 재이관, 학교 예술강사와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소관 부처 일원화,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등 스포츠 분야 지원 확대 노력, 어르신 스포츠시설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방식 개선, 여행업계 지원 노력 필요 등 6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한 건 한 건을 정부 측 의견을 들으면서 바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이 앞전처럼 그냥 한꺼번에 다 말씀 듣고 의논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김승수 위원 2차관 소관까지는 한꺼번에 다 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하여튼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 돼요?

○소위원장 민형배 예, 한 번에 다 쭉.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은 단일 지역 대상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20년부터 지방 이양되어서 증액안 반영은 수용 곤란합니다.

다음,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 체육시설 조성 지원 사업도 2023년부터 지방 이양되어 증액안은 반영이 곤란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안이 18억 원으로 수정 반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체육인재개발원 지원 사업은 체육인 교육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증액안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은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 국가대표지도자 및 트레이너 등 지난 7년간 임금인상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15%를 적용한 2억 원 증액으로 수정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국립 스포츠 조성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기본 연구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수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수용입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신규 융자 수요를 발굴하고 또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스포츠 융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융자금 집행 저조를 감안하여 843억 감액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은 연차별 집행 계획 및 건립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증액안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APEC 기념 한중 대학생 3×3 농구 페스티벌 개최는 정상회의 기념 한중 대학생 체육교류 지원을 위한 증액안 3.5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5억 원 중 3억 5000.

○**조계원 위원** 3억 5000 아닌가요, 원래 요구는? 3억 5000 다 수용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산을 안 하고 이벤트만, 5억 원 중 3억 5000만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대회 비용 전체가 5억인데 그중에 예산 빼고 이벤트 비용만 3억 5000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대회 국비 지원은 전년도 공모를 통하여 지역 및 종목 안배를 거쳐서 선정되는바 특정 대회 지원 지원은 다른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숨은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액안 또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잠깐만요. 11번 거기 정부 의견에서 위쪽의 국민관광 지원 이건 수용 곤란으로 돼 있고 아래는 수용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소위원장 민형배**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증액안 25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인데요. 그 순서에 앞서서 요약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혹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증액을 했었는데 그게 모두 그냥 무효가 됐

잖아요, 감액 예산만 지난번에 편성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제기되었던 증액안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은 빼졌고 어떤 건 들어갔고 이걸 개요를 알 수 있게 정리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걸……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입니다.

체육국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위원장 민형배 그냥 몇 건, 얼마였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어떤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들어 있는 게 2번, 5번, 6번 세 가지인데요.

2번은 지난번과 같이 지방 이양해서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요.

5번은 후보선수 양성지원입니다. 그때는 증액이 10%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얘기하신 건 20% 증액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 인건비 상승분과 똑같이 15%로 저희가 수정해서 수용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인데 지난번과 똑같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렇게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증액 심사 중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항은 11번 두 번째에 있는 숨-핫 제작 홍보 지원 사업 1건이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지난번 증액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기존에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편성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양문석 위원 안 하면 되지.

○조계원 위원 올해 예산에 예산 사업으로 반영하나요, 본예산에서?

○소위원장 민형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이번 추경 때 기재부와 대부분 사업들 전부 다 논의했는데 일단 이번 추경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체육국도 마찬가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 빼고는 꼭 대부분 다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이랑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공사업정책관 김근호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게 없어 가지고 그건 반영이 된 걸로, 그래서 여기는 빼져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책질의 요지 관련돼서 2번, 수용 곤란이라고 해놨잖아요, 일원화시키는 데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수용 곤란 아니고 일부 수용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의 일원화 추진 방향에 동의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에게 정말 좋은지, 불이익 없는지 예술강사 소관과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공감하고요. 그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강사는 지금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이걸 다 해 준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술강사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재정……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일부 수용이 아니라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논의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몇 번 회의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1차관 소관이 오면 다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자체 이관 사업에 대한 대한체육회 재이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다 내려보내고……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님, 이거는 감정적인 거보다는 사실 자체 매칭으로 하면서 본예산보다 예산이 좀 늘었고 이전보다 자체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수혜를……

○임오경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걸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에서 단체장이 결정을 하게 되면 자체장의 관심사에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더 큰 개입이 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시 재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프로그램 또한 종목 선택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점이라니까요. 단체장이 좋아하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다 같은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7개 정도 카테고리 분류를 해서 공모를 해서 한 7개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자체로 이관하면서 총 한 140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프로그램 수가 다양해졌다는 건 확실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부터 좀 조사를 할 건데요.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위원님의 우려가 맞다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돌리든지 그런 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항공사고 위기 극복 관광산업 지원(신규)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항공기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전남·광주 지역의 여행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거기에 인바운드로 타 지역에서 광주·전남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제공, 그 편의 제공에는 교통료 지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객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일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 대형 업체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안하신 총 35억 중에 인센티브는 좀 부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삽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를 저희가 제출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특히 광주·전남 지역으로 가는 국내 여행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된 총액 35억 중에 25억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올립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조계원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조계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래요?

○조계원 위원 예.

○소위원장 민형배 저는 그 인센티브를 뺀 것이 좀 불만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거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당연히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통상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이게 대형 업체, 대형 여행사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대형 업체를 배제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다시 회생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중소 여행사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랬을 경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상품 개발비 형태를 오히려 좀 증액하는 형태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건의를 올렸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승수 위원 무안공항 여객 운행이 재개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언제 재개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한다는 예정입니다만 아직 까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확정된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업계의 피해는 좀 당분간 계속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관광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예산이 진짜 지원이 돼야 되는 곳에 가지 않고 낭비 쪽으로 갈까 봐 걱정스러워서 지금 제가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래서 지역에 있는 1000여 개의 영세 업계들에게 이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객 인센티브 예산은 약 1억 정도고 나머지 9억 원은 지역관광 개발의 숙박 할인 지원이 문체부 사업 이게 중복이 돼서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모객 인센티브는 1억 정도……

○소위원장 민형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국제대회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특정 대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원장 민형배 몇 번이지요?

○임오경 위원 10번요.

국제대회 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특정 대회를 하게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희가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국제대회 지원 사업은. 저희가 스포츠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특별법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관련해서 국제대회 개최 지원 법률이 있는데요 그건 20억 이상의 큰 대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20억 이하의 작은 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 또는 종목단체에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가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국제대회, 국내 국제대회 지원 사업은 아예 없나요, 그러면 20억 미만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그러니까 20억 미만은 저희가 지자체나 종목단체 공모를 통해서 종목 구분 없이 안배해서 전년도에 지원해서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공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트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두 트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예.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다 끝나셨지요?

○조계원 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을 국비 415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갈등 그것이 반영되면서 이것의 운영에 필요 한 예산 자체를 지금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415억 원을 투입해서 지은 체육인재개발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인재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 예산으로 10억 원을 준비해 놓고도 그걸 놀리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문체부에서 당연히, 이제 대한체육회의 갈등도 끝났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19년 11월 8일인데요, 여기 소위에서 그때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의결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안 준 부분이 있었

고요. 그건 갈등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운영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흥군에서 10억을 냈고요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10.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억으로 지금 운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요구하는 바는 이게 모자랄 것 같으니 더 달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체육회랑 합의 본 부분은 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방식이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합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대한체육회와 논의 중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임오경 위원 논의하다가 또 1년 다 지나가는데.....

○양문석 위원 체육국 한 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1조 6000억~7000억쯤 됩니다.

○임오경 위원 1조 2000억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우리 체육국에서만 쓰는 게 1조 2000억이고 국제협력관실까지 쳐서 1조 한 7000억쯤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요.....

○김승수 위원 진종오 위원님.....

○소위원장 민형배 아, 있어요?

○진종오 위원 죄송한데 저는 좀 많거든요. 빨리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계원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체육회, 장흥 관련해서 이거는 문체부장관이 승인하면 대한체육회가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처럼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체부에서 문체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자체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자체 수입을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체부장관이 장흥 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줘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지금 그 부분도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이 뭔지를 검토해서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임오경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 이관 관련해서도 제가 17개 시도를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 17개 시도 회장들 하는 말씀이 제발 좀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 조사 어떻게 할 건지 조사 진행 상황 관련해서도 저희한테 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거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계원 위원 그건 따로 보고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다 같이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이거는 좀 모두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바뀌고 있는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현장에서 최소 금액으로 52억을 증액 했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18억이라고 제안이 왔어요. 일부 수용이 왔는데 이 18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으로 일단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수당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던 수당이 정부가 주는 수당으로 대체돼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급 인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어서 기본급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면 얼마큼 증액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현재 국가대표지도자든지 후보선수지도자가 15% 정도 임금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5% 정도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전년 대비 임금 상승이 3%가 이루어 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2%를 증액하는 금액이 지금 제시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도 실제로는 36억이 돼야 되는데 5 대 5 대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18억을 제안해서.....

○진종오 위원 정부에서 18억이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방에서 18억을. 그래서 12%, 그다음에 원래 증액된 3% 해서 15% 증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왜 거기서 15%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국가대표지도자가 전년에 15% 증액을 했고요. 내년에 후보선수지도자도 15% 증액할 예정이어서 모든 지도자들은 15%에 맞출 계획입니다.

○임오경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3% 상향됐다라는 것은, 증액됐다라는 것은 전국 다 확인해 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24년도 예산에서 25년 예산 넘어오면서 3% 증액이 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전국 다 확인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기본급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자료 하나만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거는 자료는 다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이 문체부 소속인지 대한체육회 소속인지 지방 소속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말씀드리면 예산은 저희와 지자체가 반반을 대고 있고 소속은 시군구 체육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어정쩡한 구조는 맞고요. 그 부분을 전액 국고로 가든지 아니면 전액 지자체로 가든지 이런 형태가 정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이거 부대의견에 지금 1번으로 달아 놨잖아요. 여기 종합 검토하신다 그랬으니까 재빨리 이것 좀 서둘러서 올해 예산 때부터는 정리하도록…… 아니, 내년 예산 가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정리할 수 있도록 재빨리 검토보고서를 좀 내 주세요, 현실적인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올해 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한 해 동안에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이 사업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좀 판단해 보려 해서요……

○소위원장 민형배 아이고, 절반만 지나도 알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일단 우선적으로 빨리 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금액은, 그러니까 결산은 올해가 끝나야 되지만 이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중간만 지나도 알 수 있지요. 만약 그걸 모른다면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바로 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진종오 위원이 벌써 전국 17개 지자체 다 돌아보니까……

○진종오 위원 거의 다 동의하시는 상황이라서……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결산을 해 봐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제도가 온당하냐 이것 따지는 거니까 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빨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균특 사업들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돼 가지고 현재 문체부 사업들 중에 균특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올해 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 말씀하시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은 올해랑 비슷합니다. 1조 한 7000억 정도.

○김승수 위원 이제 앞으로 없을 거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김승수 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 다 지방 이양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아닙니다. 저희 총액 예산이 그렇고요.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은 정책기획관이고요.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지방 이양된 금액이 한 8900억 정도 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 이양 사업들 거의 다 지방 이양됐기 때문에 문체부 사업들 중에 지방 사업들이 지금 균특에 잡힐 게 거의 없다는 것 아니냐 그것이지요, 내가 물어본 게.

○조계원 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총액 해서 8900억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은 지금까지 총액으로 8900억이고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균특 사업 넘어갈 게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김승수 위원 지금 완전히 이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균특으로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문체부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지금 더 이상 넘어갈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문체위 의결하시면서 지방에 넘어간 지방체육시설을 국고로 넣자고 그때 결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결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저마다 재정 상황이 다 천차만별이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이런 지역은 지금 자체 재원 가지고 거의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이양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각 지역에, 인구소멸지역이나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노인체육시설은 정부가 국고를 많이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은 짜고 있고요. 기재부를 저희가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체육인재개발원, 앞서 대한체육회와 논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운영비는 자체 부담을 하기로 해서 시설비만 지원했다가 생각이 또, 이미 시설이 되어지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보면.

지금 문체부 산하기관에 이런 인재개발원이 대한체육회 인재개발원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교육시설 같은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는 현재 따로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은 콘텐츠 분야에 장르별로 게임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그맣게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 전체를 통틀어서 인재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부처 산하기관의 인재개발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선례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을 따져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문체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시설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지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산을 반영해 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시설은 굉장히 잘 지어 놓고 나서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교육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잘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지 안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한체육회와 이 부분 논의를 좀 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지금 진종오 위원은 이번 추경안에 너무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421억 정도는 추가로 증액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이게 삭감한 만큼 집행이 안 될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저희가 16% 정도 집행이 됐고요. 작년……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원래 가장 많은 대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골프 분야 인데요, 골프가 대출의 한 오류십 프로를 차지합니다. 이전에 코로나 시기 때는 골프가 활성화되면서 골프시설 투자에 대한 용자가 많았는데요. 이제 지금 골프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골프시설 투자에 대한 대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출이 줄었고요. 전년 대비, 전년 5월 기준은 30% 대출했는데 현재는 16%밖에 안 나갔으니까……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 추계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시설 투자나 확장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번 추경안에 전 국민한테 민생회복지원금, 그냥 돈 나눠 주는 것이 있고 또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한테 이자 보전해주고 저율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 관련되는 업종에서도 여러 가지 보면 돈은 빌리고 싶은데, 또 이미 빌린 돈을 갚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이자율이 비싼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자 보전이 안 되거나 이런 데가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기존의 여기 예산, 그러니까 체육인들, 체육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편성된 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그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대출 금액이 10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제한이 있었는데 필요하신 데 돈을 더 쓰실 수 있게 대출 제한을 풀어서 50억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 골프장뿐만 아니고 태권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헬스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지금 전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이 안 된다, 또 그런 사업장 개설하면서 빌린 대출 상환이 진짜 막막하다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대출 금액을 올려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한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이번에 총액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예술 관련되는 시설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스포츠클라이밍, 저는 임오경 위원이 상당히 좋은 대안

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계선수권 대회 개최 이게 사전에 공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지 선정하는 기간하고 또 정부 예산에 담는 기간하고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그래서 예산에 반영 못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1차관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스포츠클라이밍은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도 있을뿐더러 지금 올림픽 쪽에서도 유망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특히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관광 지원 관련해 가지고도 근로자 휴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1차 추경에 343억 반영을 시켰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432억을 반영시켰어요. 이 부분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회 추경에 반영시킨 것들? 집행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말씀하신 게 숙박 할인권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1차를 먼저 했는데 그때 약 9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부터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에도 이게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영등한 데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다 휴가 지원 사업이 본래 목적과 다른 업종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것은 아마 저희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한번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이게 보면 근로자들한테도 휴가 지원의 혜택이 있지만서도 이 사람들 휴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여행·관광 업종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돋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끝으로 12번, 지금 무안공항…… 저는 이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영세 여행업자들이 그래도 어려운 고비는 넘길 수 있도록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경북 지역도 이번에 엄청나게 산불피해가 나면서 여행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거기 여행객들이 거의 10% 이상 감소,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경북 지역 산불피해 관련해서 관광업계 피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에 여기다 좀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간략히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 지역도 지역관광이 굉장히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과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광주·전남 지역의 여행업계들은 아웃바운드 하는 업계다

보니까 비행기가 안 뜨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제로인 상황이고요. 경북 지역은 대부분이 또 인바운드를, 국내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제로는 아니고 좀 줄어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어쨌든 그것은 그러면 이번에 아니면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때 반영을 꼭 하도록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조계원 위원** 경북, 산불특위 관련해서 거기에 예산이 또 별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 다뤄질 거니까요.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 APEC도 있고 그러니까 파손된, 훼손된 관광시설 복구라든지 또 여행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것은 각별히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항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심사항목을 심사해 갈 텐데 중간에, 지금 1차관님 순서잖아요. 2차관님 소관 심사를 마칠 겁니다. 마치고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궁금한 것.....

○**소위원장 민형배** 아직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

○**소위원장 민형배** 예.

○**임오경 위원**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소위원장 민형배** 잠깐만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예를 들어서 WYD 대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세계 천주교..... WYD 대회, 청년대회요. 이런 것은 특별법이 없는데, 특별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지금 종무실 소관이라서 조금 이따가 1차관 소관 할 때 질의 주시면 답변 올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대회 관련해서 잠시만 더 설명드리면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예정돼 있는 마스터스대회나 이런 것 20억이 넘으면 기재부 승인을 거쳐서 저희가 별도 예산내역으로 넣어 주고요. 2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5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연말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 공모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있는데 비인기 종목은 20억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종목 특성상.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예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아니요, 그러면 종목단체 지원이 따로 있어서 한 1억 5000 내외로 해서 다시 저희가 민간.....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12억으로 올렸는데 1억 5000 정도 받아서 대회가 치러집니까, 비인기 종목들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그런데 사실 작년 말에 둘 다 신청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은 2억 90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자체 예산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규정상.

○임오경 위원 그것을 형평성을 한번 잘 따져 보시고요.

마지막에 금융 관련돼서, 융자금 관련돼서 심사 과정에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완화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을 완화해 주면서 해야지 완화도 안 해 주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것도 완화를 하고 금액도 완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같이 가야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2차관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부대의견 중에서 진종오 위원께서 말씀 주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방식 개선 필요에 대해서요.

○소위원장 민형배 몇 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5번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부대의견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의 휴가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참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한다, 일부 수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그런데……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일부 수용이면 어떻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이 사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5년 이상 이 사업에 참여한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민간의 기업이 더 늘리고 정부 지원금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신데요. 이게 사실은 민간 자부담을 높이라는 기재부의 개선권고를 받아서 올해부터 개선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다 개선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중에는 개정이나 변화가 조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진행 상황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반영할 때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개선 방향은 기업 부담은 약간 줄여 주고 지원금은 늘려 주는 쪽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마지막, 부대의견 저도 보니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제가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자체가 제가 전체회의 때 지적했듯이 일단은 지자체 매칭사업 내 지자체하고 협의도 안 돼 있고 사업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단 말이지요. 또 수강료 지급 방법도 제로페이를 통하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것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지역적인 편재성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설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업이 바로 진행됐을 경우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 부진이나 또 불용 우려가 상당히 크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전액 반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한 걸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추계도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부분 예산을 조정해서 효과나 또 실제 그런 집행이 되면 그걸 봐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추가로 반영시키든지 이렇게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기준의 스포츠강좌 바우처하고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기준의 스포츠강좌 바우처는 전체 대상 인원의 20%가 수혜를 보는 형태인데요, 여기는 10%만 수혜를 보도록 그렇게 인구를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시설 우려하셨는데 지금 현재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이 6만 4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4만 6000개가 제로페이에 가맹이 돼 있어서 가맹업체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4만 6000개 중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이 소외지역에,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어서 어렵다는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게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국장님들과 저희가 7월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파크골프장은 꼭 포함시켜서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심사 마치고요.

장미란 차관님 수고 많으셨어요.

1차관 소관 준비하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형배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천우정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디지털 신기술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입니다.

내역사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입니다. 인공지능에 활용 가능한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관련 공공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제작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500억 원 증액과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국별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실·국별로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심사도 실·국별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요청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요청사항.

정말로 앞으로 1시간 반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복, 반복은 절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질문을 하시고 개별 의원실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조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조계원 위원 100억 원 증액 수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아니, 50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아까 그 얘기하신 것,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말씀 하라 그 말씀이지요?

○조계원 위원 아니요, 지금 방금 수용이라고 그래서 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 어느 것을 수용하느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그래서 500억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이따가 다시 다 논의할 거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요, 논의 안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조계원 위원 논의 안 할 거예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 실·국별로 심사자료를 말씀을 하시면,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면 정부 측 의견 듣고 우리가 질의 응답하고 심사 끝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의결은 다 같이 할 거고요.

○김승수 위원 조계원 위원님 예결위원회이시니까 잘 설명드려야 돼요.

○조계원 위원 아까 제 방에도 찾아왔던데요.

일단 이게 정부 측에 의해서, 민형배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50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용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았는가, 시범사업의 결과조차도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정부.....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걸 강하게 밝히고 있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예산을 낸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철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더 많이 따져 보고 싶은데 잘 점검하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이것은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위원장 민형배 예, 하시지요, 그러면.

○임오경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1회 추경으로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30억 가까이 추경으로…… 추경이 아니었지요, 쪽지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1차 추경에서 원래 문체위에는 없었는데 별도로 넣었으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1차 추경 때 예결위 소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예결위 소위에서 반영되었지요.

그다음에 새 장관 취임 후에 문체부가 진행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26년도 정부안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 작업을 시작해서 연말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시급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AI 관련돼 가지고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기술 격차가 뒤집어질 정도……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올렸었어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할 정도인데 왜 그 전에는 전혀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만으로는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번 추경 때 GPU 관련된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GPU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일단 기반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가……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안에 갑자기 500억이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라고 한다라면 대통령 공약사업도 올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억을 저희가 갑자기 2차 추경에 반영을 시킬 정도인데 이렇게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었으면 작년 11월에 예산 심의에서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GPU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업체의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GPU 사업이 반영이 되면서 이 데이터 사업이 결합이 돼야지만 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현장에 있는 네이버라든가 주요 업체들하고 이미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관련된 데이터가 집행이 됐을 때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이미 했고요. 지금 이번에 하정우 수석, 자신 분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집행 가능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500억의 예산 모든 계획서를 저희 의원실로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줘야지 예결위가 가지고 우리가 방어가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소위원장 민형배 다음은 문화정책관 소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작업

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금 예결소위 위원들 계속 접촉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금 AI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되어 있으시고, 특히 하드웨어로만 갈 경우에는 이게 반쪽짜리 예산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다 준비하고 있는 만큼 바로 이것은 현장 투입이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됐습니까, 이제? 진짜 이제부터 속도 내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소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쪽입니다. 문화정책관.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내역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감축된 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예술강사 채우 개선 및 초중고 학생들의 보편적 예술교육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대비 강사수당 등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117억 증액 의견과 51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다음 한국어 진흥기반 및 조성 및 확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어 AI 튜터를 개발하여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품질 향상과 한국 문화 전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2건 모두 수용입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바 그중에 51억 원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117억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성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학사 일정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별 교육청별로 이것을 전면 개편해서 집행한다는 게 조금 무리한 상황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전체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재부 쪽에서 이 예산안의 개편 방향을 설정을 할 때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하고 분리를 해서 강사수당은 국고로 강사료는 지방재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예결위에서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수당하고 강사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강사료는 개별 1시간당 급여 개념의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수당은 그 외의 교통비라든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

급이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 기어이 지방정부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네요? 기존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그렇게 지금 큰 방향에서 한 3년 동안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바로 뒤집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지방재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정도로 편성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갈지는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쪽으로……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일단 이재명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 내겠다, 김구 선생님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그 문화 강국의 자양분, 기반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BTS 같은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문화예술의, 문화 영토를 넓히고 또 문화예술 산업의 부가가치를 늘린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BTS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재결성되면서 무려 2조 원의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억 원 이것 때문에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사업들을 포기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다, 2023년에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했던 시수보다도 지금 대폭 감소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2023년도 문화예술교육 시수에 맞추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은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방교육청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수업시수를 2023년 수업시수에 맞추어서 추가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수당하고 강사료가 분리가 돼 있는데 강사료는 지방교육재정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매칭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했을 때 총 117 억 원이 증액되면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17억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양문석 위원** 조계원 위원 이야기에 조금만 거론을 하면요, 멀쩡한 예산을 갖다가 문화부가 24년, 25년에 깎아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책임지고 23년 수준으로 복구해라라는 부분이고.

지금 1차관 말씀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7억 원 증액에 대한 조계원 위원의 말씀에 117% 동의합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지금 정부가 수용한 51억을 반영했을 경우에 강사들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연봉으로 따지면 66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예술강사만 해 가지고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17억을 요구를 한 것이 좀 시수를 늘리고 기간을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은 117억으로 문체위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 17개 시도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무리하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는데 일단 시도를 설득하는 과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 쪽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난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7억을 집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또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임오경 위원 저희 AI 튜터 이것 시급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AI 튜터 부분은……

○임오경 위원 세종학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어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이 부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10배, 100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악된 것은 세종학당이 개설된 도시에서만 파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세종학당을 계속 늘려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앱을 통해서 AI 튜터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재정 투입을 많이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된다라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인 세종학당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시키게 되면 반대로 강사 인력은 좀 줄어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현재와 똑같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강사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어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강사가 줄어들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이것 추가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추가로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기존의 강사 역량 플러스 AI 튜터.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AI 기술들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력이 10명이었다라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인력은 10명이면 그대로 놔두고 이런 것은, 예산 해서 AI 튜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모두 AI로 융복합으로 하는데 인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임오경 위원님, 제가 이것 제안한 건데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세계의 세종학당에

서 한국어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하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해서……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500억 지원도 해야 되고 AI에 관련된, 인공지능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력 축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왜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동일한 서비스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인원 1000명에게 서비스하는 거라면 당연히 AI가 결합됨으로써 인력이든 예산을 줄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한국어 수요 같은 경우는 위낙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관점으로……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카페를 가더라도 키오스크 하나 가지고 지금은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입구에 키오스크가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력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이 접목될 때는 인력도 축소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500억, 많은 예산, 50억 그렇게 증액을…… 이런 증액을 할 때마다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융복합으로 적용시킬 때마다 이제는 인력도 줄여 나가는 걸 해 나가야 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다 무료화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전 세계인들에게 무료로 강의해 주시고 AI 기술까지 다 접목시켜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하나를 늘려 주면 무언가 하나는 또 축소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세계적으로 한글을 보급하는 겁니다. AI 튜터를 통해서 하는……

○임오경 위원 알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소위원장 민형배 아까 용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는 인건비를 줄여서 AI로 대체하는 영역이 있고 어떤 분야는 확장만 해 가는 영역이 있고, 이것은 확장해 가는 영역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술정책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심사자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5쪽입니다.

예술정책관입니다.

4.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내역사업 2025 영동국악엑스포 개최 지원은 국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내역사업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환경 토양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기집행 지출 의무 예

산을 제외한 잔여 예산 2억 7100만 원 추가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내역사업 공연예술 창제작공간 조성은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하여 공연 창제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일정 지연과 집행 부진으로 현재까지 집행 액이 0원임을 고려하여 14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입니다.

내역사업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은 지역특색이 담긴 야간 공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입니다.

내역사업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운영은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의 재원 조성 출연금 및 사업 운영비를 위해 20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 함께누리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장애인 대표 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대표 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음악 국제교류 활동이 가능한 합창대회인 2025 한국세계장애인합창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내역사업 장애인 대표 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대표 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밀라노 아트페럴림픽 지원은 2026년 밀라노 패럴림픽 개최에 따라 국내외 아티스트 협업 및 전시회 개최 등 장애예술인의 아트페럴림픽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9.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문학 분야 올림픽 성격의 행사인 제24차 세계비교문학협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10. 미술진흥 기반구축입니다.

내역사업 문화창작공간 조성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공사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기성금 및 관급자재 발주 예산 69억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문화창작공간 조성은 지역 미술관의 권역별 균형 건립 및 자자체 미술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해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경상운영비의 시설관리 및 개보수는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 기숙사 리모델링 및 시설물 보강을 위해 56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12.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수상자와 연관 깊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3. 지리산 국제환경 비엔날레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예술과 생태관광을 연계하는 참여형 공공예술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4번부터 시작해서 한 꼭지씩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그냥 가지고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 것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4번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조계원 위원** 김재원 위원의 의견이 있네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5번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4번, 4번요.

○**조계원 위원** 4번 넘어간 것 아니었어요?

○**소위원장 민형배** 5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5번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유는……

○**소위원장 민형배** 왜 감액 못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환경 관련돼서 좀 더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감액에 관련된 부분들은 프로그램 개발, 표준모델 개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서울에 R&D 센터 개념으로 조성한 이후에 지역별로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이걸 확산해 나갈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준모델을 사전에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형배**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금년에 이것을 해 놔야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양문석 위원** 이게 용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산 어린이예술문화공간 조성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술마을, 맞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거기의 환경 토양 문제……

○**임오경 위원** 환경 토양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사실 앞서 이미 정리는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임오경 위원** 정리가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게 금년 가을에 완료가 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토양이 진행 중인데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아니, 앞서서……

○임오경 위원 이게 환경 토양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미해결된 부분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런데 앞서서 국토부에서 이미 조사를 한 번 완료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차 심층조사를 한 번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구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 무기고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장교 숙소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게 작년에도 끊임없이 논쟁이 됐고 그리고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도 아니고,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정부하고 야당하고 첨예하게 논쟁이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용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기성으로 집행돼 있는 부분 외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저희가 표준모델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쟁적 사업이었고 김건희 사업이었다고 분명히 정리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아니, 기존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이미 삭감했습니다. 120억 이상을 삭감한 상황이고요. 지금 남은 것은 연구용역비 2억 몇천만 원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양문석 위원 아니, 내년도에 원활하게 사업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원활하게 사업을 하려고 그래.

○소위원장 민형배 차관님, 이렇게 할까요? 정부가 바뀌었고, 이것의 방향이 지금 문체부가 하는 대로 갈지 좀 달라질지 모르고. 이런 경우에 이런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고, 그러니 삭감해 놓고 올해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반영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해 가고 싶습니다만 꼭 해야 됩니까? 감액하면 절대 안 됩니까?

○김승수 위원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1회 추경 때 이미 126억 삭감한 것 아니에요? 민주당 위원님들 문제 제기에 따라서, 특히 환경 토양 문제 이런 것들 선해결 후에 하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차관이 설명하는 부분은 그때 문체부에서는 일단 용산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에도 대표적인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또 한 가지가……

○김승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R&D 용역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꿈꾸는 예술터라고 해서 지역에 열두 군데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도 저희가 이 프로를 그대로 공급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준비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술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개발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김승수 위원 이게 용산 시설 예산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표준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지역에도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복합어린이문화시설이 생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 하나씩 생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치적으로 정쟁을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을 오히려, 6개 부처가 이것을 합의해서 저희가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용산대통령실하고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을 용산어린이정원 대신 다른 부지를 위한 용역 및 사업 추진 사안으로 필요는 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무조건 감액보다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겨 뒀다가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때 가서 불용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좋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치적인 것은 걷어 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연욱 위원 그건 1차 감액이 120억 정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일단 진행합시다. 나중에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양문석 위원님, 그냥 일단 가자고 그러는데.

○양문석 위원 동의해요. 그렇게 하세요.

○정연욱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감액 않고 그냥 가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다음에 6번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6번 부분은 이것도 수용 곤란 의견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집행 부진이라고 나온 이유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찾아보도록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 권역에 있는 부지를 열아홉 군데까지 현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은 결과 여기 정도의 공간이라든가 임대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서 현재 부지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쪽으로 방향은 설정했는데, 다만 지난번에 검토하실 때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서 차제에 이 공간 전체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대체부지 선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민형배 지금 여기서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상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임오경 위원 저희가 부대의견을 그때 달았었잖아요.

○소위원장 민형배 이것 부대의견 들어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부대의견을 달았더라고요.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그러니까 부대의견이 여기 혹시 있나요?

○양문석 위원 너무 협박 같아. '여기서 할까요?'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야, 지금.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협박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것을 보고받을까요?

○김승수 위원 개별적으로 하시지요, 나중에.

○소위원장 민형배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요.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번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 논의는……

○소위원장 민형배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일부 수용인데 어떻게 일부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 부분은 요청을 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 공모 형태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지만 기재부 전체 예산 방향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큰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지정형 시범공모사업 형태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방비 반영 비율이 30~60%로 달라집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어쨌든 증액하는데 지정형 시범공모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 30억이 아니고 액수도 가변적이라는 거지요, 공모 내서 하니까?

○조계원 위원 금액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금액은 그대로 가도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예, 그 방법만……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양문석 위원 너무 궁금한데 문화유산청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부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원래 주관이 누구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청에서 그 지정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들을 일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지정문화재라기보다는 공연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견 유사해 보이더라도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유산청하고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협력사업 형태로

같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것 부대의견 달까요?

○양문석 위원 예, 말만 하고 말고 부대의견 달아서 유산청하고 문화부하고 관광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협력 및 역할분담 안에 대해서 문화유산청이랑 저희가 협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예, 그러면 부대의견을 하나……

○조계원 위원 그러면 정리해야지요, 문안을.

○양문석 위원 시간 걸리면 그냥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민형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요?

○양문석 위원 예, 이번에는 넘어가시고……

○소위원장 민형배 초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이따 의결할 때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 페스티벌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4번에 영동국악엑스포 개최 이런 것은 자체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전에는 저희가 단위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미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오경 위원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그런 것 없이 지금 여기는 그냥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사업 안에다가 공모사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엔날레나 이런 여러 축제 사업들이 있다가 지방 이양이 됐고요. 영동국악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제 엑스포기 때문에 국제행사 심사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거나……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국제 심사 또한 공모사업으로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다이렉트로 문체부가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공모사업이 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협회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주체에 따라 다양합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저희가 마지막까지 설명하면서 모든 예산 지원은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지금 보시면 지방의 특정…… 뒤에도 보시면 비엔날레 이런 경우에 특정 사업 지원을 지금 저희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지금 백제 명품야간상설공연 이것 신규도 저희가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결치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작년에 지역 대표 예술단체라는 사업을 국회에서 새로 신규로 넣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지역하고 할 수 있는,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몇 개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일괄적으로 준다거나 특정 지

자체, 특정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문화예술 쪽은 지방 이양이지만 다 넘겨주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거의 다 지방 이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가 방금 전에 2차관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은 지방 이양으로 해서 지방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문화예술 쪽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예외적인 근거를 만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임오경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하는 근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는 이미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모 형태 사업으로 저희가……

○**임오경 위원** 그래서 아까 WYD가 여기 쪽 사업이잖아요. 종무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예, 종무실에서 합니다.

○**임오경 위원** 예, 종무실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임오경 위원** 그런 것은 그냥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세계청년대회 같은 경우는 서울대교구 조직위가 설립되어 있어서 서울대교구 쪽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저희는 종교행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교행사를 어떻든, 공연 페스티벌 행사를 국제행사든 세계 무술 행사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도 요청을 하면 일부분 있다, 문체부 자체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통상은 지원이 안 되는데 영동국악엑스포도 국회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차관님, 이 두 가지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많은 자치단체 이양 사업들 있잖아요, 체육 쪽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쪽에. 이것이 지금 너무 복잡해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양 사업, 자치단체 이양 사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지방 이양을 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운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 사업의 방향과 관리·운용 방법에 대해서 문체부가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소위원장 민형배** 안 그러니까 계속 곳곳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공모사

업 수행 방식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은향 국장님이랑 체육국이랑 그쪽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안을 다음번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래야지, 이 얘기가 너무 자주 여러 번 나오거든요.

○김승수 위원 그래서 마침 여기 보면 세부사업은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이고 내역사업으로 백제문화 야간명품상설공연이란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단위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으로 일단은 예산을 잡고 만약에 공모를 받을 경우에, 만약 30억이 증액됐다 가정했을 경우에 30억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내역사업에 그대로 30억을 주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공모라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픈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게 될 겁니다, 제안서를.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 자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에 잡힌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추가로 지역에서 이런 팬찮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100억 정도 더 증액시키면 그 증액된 100억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추가 선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보면 여러 가지 문체부 사업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도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국제행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자체 예산을 진짜 수십억, 한 10년 됐으면 수백억을 투입하면서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똑같이…… 그런 데는 국비 몇억, 일이억 받기도 힘든 반면에 진짜 일회성 사업에 10억씩 20억씩 가면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을뿐더러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꾸로 가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좀 바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서 계속해서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계청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행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단순한 종교행사도 아니고. 정말 챔버리 행사보다 훨씬 많은 전 세계 인파들이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체 종교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 버리면 또 한번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사 당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주관 부처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성공시킬 것이냐. 예산 반영부터 좀 별도로 가져가야 되고 그런 치밀한 기획하에 타 부처,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 설득을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문체위원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지원 좀 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국제행사나 종교행사 중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그냥 챔버리 행사 이상으로 국제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도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아까 장미란 차관은 모든 게 지방 이양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정부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데……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서도 진짜 무슨 국제 페스티벌이 있다라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도리가 조금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거기서 답을 받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WYD 같은 경우도 특별법이 지금 올라와 있지만 특별법 없이도 규모에 따라서 종교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관광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증액을 시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논의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임오경 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죄송합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부터 진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7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지요?

○김승수 위원 이것은 의견 있습니다.

2010억 증액이 되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것 사용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이것은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조직이 현재 있고 거기에서 예술인공제조합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그게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이것 용역 3월 달에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저희 필요하고, 안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상품들까지.

○김승수 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무려 2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인력들이 이 예산을 담당할 것이며 2010억 원을 어떤 식으로 이 금고에 투자를 해 가지고 운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2010억의 원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자분이라고 했을 때……

○김승수 위원 원금을 쓰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2010억이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이자가 남은 하반기에는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 사업을 18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억을 추가하면 200억이 되니까…… 현재 융자 사업의 경쟁률이 2.5 대 1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자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것은 아는데 어쨌거나 지금 2010억을 증액해서 이 금고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김승수 위원 그러면 2010억을 금고에 그냥 그대로 턱 해 놓고 이자만 뽑아 먹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이자로 융자 사업을 하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공제회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들,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융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2000억의 정부 예산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운용할 것인지 기

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 예산을 해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운용할 것인지 보고받은 위원님들 있습니까,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용역 결과 나오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게 제대로 가는 건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저희가 용역이 나왔고 공청회도 기존에 한 두 번 정도 한 게 있습니다. 예술계 전체 공청회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액을 시켰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술인들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텔리케이트(delicate)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 데 대해서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 부분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처음 만들 때 정부에서 3000억 정도를 출연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운용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한 삼십 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술인들의 자격요건을 선별하는 문제라든가 공제조합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관해서는 이미 10년 이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제조합이라는 형태로서 진행이 못 돼 왔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기여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워낙 어렵게 프리랜서로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그 이식금을 활용해서 정부가 예술인들을 조금 더 지원하자라는 의미기 때문에 이게 완전 신규사업 형태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 돈을 갖고 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준비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법안 할 때나 뭐 그 정도 가지고 덜컥 2000억씩 받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김승수 위원님……

○양문석 위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좀 하세요. 그래야 넘어가지.

○정연욱 위원 용역 결과나 진행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저희가 용역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예. 이것은 이 기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정부 기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이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여서 이것은 운용하는 방법을 잘 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김승수 위원 이게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2000억 정도 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될 리도 만무하겠지만 그냥……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반영해 보시게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 들고 오는 게 맞느냐 그거지요, 내 얘기는.

○소위원장 민형배 그다음에 8번 함께누리 지원 사업.

정부 입장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9번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 3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수용이고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조계원 위원 아까 함께누리 지원 사업에 뒤의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당연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소위원장 민형배 10번 미술진흥 기반구축.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께서 아마 열심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놓은 거니까 정부가 수용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조계원 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10번 좀 물어보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예.

○조계원 위원 이게 권역별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미술관 분관 말씀하시는……

○조계원 위원 예, 미술진흥 기반구축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저희가 권역별로 몇 개 관을 추가해서 그것에 대한 건립 기본계획을 만드는 예산을 현재 반영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군데 수요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는 바람에 안 됐던 거고, 밑의 것은 위의 당인리 69억이…… 문화창작공간 조성이 전체 23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문화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도 없이 증액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 부분은 이미 총사업비가 정리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도를 조금 빨리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선투입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반영을 했던 것으로……

○소위원장 민형배 예.

자, 그러면 11번 한국예술……

○조계원 위원 아니요, 좀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민형배 또 있어요?

○조계원 위원 예.

어쨌든 당인리 여기는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던 우상일 문체부 국장이 거기 대표로 임명된 것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문화공간재단의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밑의 것, 지금 권역별로 했다 그러는데 권역을 보면 서울 2개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대구 이렇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추가할 곳은 강원권하고 경기 북부권하고 호남권, 세 군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안인데요, 해양문화권으로 해서, 해양 특화나 이쪽으로 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희가 지금 기본 구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69억.....

○조계원 위원 그것은 통과.....

○소위원장 민형배 문화창작공간 조성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공사 이것을 중단 하자는 뜻인가요? 이 상태에서 멈추자는 뜻인.....

○조계원 위원 일단 삭감 검토가 필요하다,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삭감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 멈추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조계원 위원 아니요,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중단되는데.....

○정연욱 위원 일단 수용 취지로.....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쪽에서 설명을 더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인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차제에 장차관이 새로 임명되면 아마 한 번 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민형배 예, 정리를 할 거고.

○조계원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을 좀 당겨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저희가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서, 원래 작년에도 이것을 당겨 달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세수가 적다면서 내년에 하라고 넘긴 것이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거의 55%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예산이 들어오면 빨리 당겨서 할 수 있고, 개관을 빨리 하는 게 예술계에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번 추경의 취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진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성에 확정이 된 사업이라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임명된 우상일 전 국장 거기 빨리 임명시켜서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건립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이미 건립은 문체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재단에서 건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조계현 위원님께서 수용을 받아들여 주셔야 이게 넘어가는데……

○조계원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11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정부 쪽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2번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추진.

정부 쪽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노벨상 수상을 기념해서 광주 지역에서 관련된 문인들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올해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올해 12월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때가 한강 노벨상 수상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대중 평화상, 한강 노벨상 이것 기념하는 행사를 좀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관련 포럼 같은 것들 몇 가지 진행되고……

○소위원장 민형배 예, 포럼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다음에 기념 음악회 같은 것들, 이런 이벤트가 몇 가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민생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추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추경에 꼭 넣어야 될 사업이냐 그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그래도 1주년 행사인데, 저희가 지난해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1주년 행사를 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추경에 넣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 없어서……

○김승수 위원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추경에……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물어봤던 게 유도리 있게…… 있다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 아까 2차관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유도리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앞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민형배 광주시가 6억 원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 저 답변을 들었으니까.

○소위원장 민형배 훨씬 더 많은데 그중의 일부를 국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정연욱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소위원장 민형배 당연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공모사업의 매칭이 아니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좀……

○김승수 위원 지금 사업 계획이 문체부에 들어왔나요? 신청이 들어왔나요, 이 사업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세부 내역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지금 이 사업은 광주는 광주대로 사업을 하고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해 가지고 서울과 광주 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의 주최 사업으로 광주는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 기념하는 사업을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노벨상이니까 정부가 해 주면 좋겠다라고 들어오는 거지요. 전체 사업비는 한……

○김승수 위원 추경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작년에 이것을 책정해 놨으면 좋은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들어온 거라서…… 딱 추경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만.

○임오경 위원 이게 한강 작가의 노벨상 관련된 거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민형배 놓쳤어요.

○임오경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노벨상 1주년이라는 게 올해 11월, 12월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정연욱 위원 사업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2주년 때 또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보통 1주년하거나 10주년이나 20주년 하지……

○김승수 위원 이런 것들을 출판 관련 행사를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도 더 있고.

○소위원장 민형배 예결위에서 살펴보라고 하고 이 정도로 갈까요?

그러면 13번 지리산 국제환경 비엔날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이 사업은 수용 곤란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이 사업은 비엔날레라고 명시적으로 지역 이양이 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역 이양 사업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로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6시까지 안 끝나면 중지하고 내일 아침으로 가겠습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1쪽입니다. 지역문화정책관.

14번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입니다.

내역사업 도서관 기반 조성의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전문 사서 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수석님, 조금 더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순회사서 인건비 상향 및 도서·독서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확대를 위해 50억 원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15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2쪽입니다.

15번 국립도서관 운영은 타당성재조사 통과에 따라 건립을 재개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ISMP 수립비 등 1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6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분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의견, 14번부터 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14번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모두 수용입니다. 3건 있는데 14·15·16번 모두 수용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역사박물관 분관 건립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정해졌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역사박물관 분관은 현재 4개 지역이 검토되고 있고 광주 지역에 민주화운동역사관 그다음에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 산업역사관 그리고 DMZ 관련해서 파주 지역에 한국전쟁역사관 그리고 경주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관광단지를 기념해서 관광역사관 이렇게 네 군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증액이 용역비만 12억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각각의 용역비입니다.

○**김승수 위원** 굳이 이걸 추경에 넣어야 되나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래야 내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우려면.....

○**김승수 위원** 내년에 예산이 이게.....

○**소위원장 민형배** 용역 한번 해 보시게요, 일단. 전에 우리 이것 하자고 돼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 부분도 저희가.....

○**임오경 위원** 이것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증액을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소위원장 민형배 작년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지난해에 반영이 됐었던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앞으로 그것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말을 해 줘야지요.

○정연욱 위원 이것 섞여 있어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민형배 이것 지난번에 있었던 거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종무실 가겠습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3쪽입니다. 종무실.

17번 종교문화활동지원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태고문화축제 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 서산대사 제향의례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18번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을 위해 내역사업인 전통사찰 보존 사업에 전통사찰의 전기요금 요율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38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사업 중 상주 신흥사 분청대장경 조성 사업을 위해 7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19번 종교문화시설 건립, 내역사업인 마하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중 마하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내역사업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비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0번 재해복구비, 내역사업인 재해복구비 관련해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 및 화재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쪽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17번 사업의 첫 번째, 태고문화축제 사업 관련된 부분은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유는 이미 국고에 1.5억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 아니라 8.5억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대로네요, 전체 총액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10억 원 그대로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서산대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그다음에 서산대사 사업은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18번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

○김승수 위원 서산대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해남 대홍사에서 합니다.

○김승수 위원 해남하고 관계있나요, 서산대사하고?

○소위원장 민형배 거기가 서산대사……

○문화체육관광부총무2담당관 이용욱 그쪽에서 쪽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해 오다가 2024년에는 국회에서 반영됐고 지난해에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다가 빠졌던 겁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18번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18번 사업은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유는 이게 전기 요금 관련된 지원 부분인데 추경 단계라 하반기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19억 3000만 원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오케이.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원·향교 그 것은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서원·향교 중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고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에 지금 이용되는 서원·향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같은 종교 형평성 차원에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서원·향교에 대해서도 같이 일정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주 신흥사 분청대장경 제작 사업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고 아울러서 유사 사업이 통도사 쪽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8번?

○정연욱 위원 아니,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위원장 민형배 지자체가 반대하는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대가 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19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종교문화시설 건립 부분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정연욱 위원 여기 마하사 이 부분은 설계비 증액 그 부분만 지금 수용 곤란이라는 취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이 부분은 지금 지방에서 재정투자심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 편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절차상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정연욱 위원 여기 지금 5억 원 증액 부분이 수용 곤란이라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총무2담당관 이용욱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부터 시작하는 건데, 신규사업인데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지방비 확보라든지 이런 기본 절차 과정이 아직 수정이 안 됐고, 차라리 2026년도 내년 예산안에서 검토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아예 전혀, 신규니까 예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보내서는 지방에서 금년 내에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증액 부분 포함해서 아예 전체가 수용 곤란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래서 투융자가 진행이 된 다음 단계로 내년……

○정연욱 위원 그것은 언제쯤 예정이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것은 지역 내 사정을 좀 들어 봐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형배 이것은 그러니까 늦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소위원장 민형배 절차가 잘 안 돼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다음에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재해복구비 부분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사안인데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재해복구 관련된 것은 재난지역 지정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쓸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불교문화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조계종 방문해서 총무원장 스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지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한 50억 정도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는 형태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복구에 대한 정확한 예산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유보를 하되 저희가 다음번에 그것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의견……

○김승수 위원 차관님, 재해복구비 이게 세부사업이 있는데 사찰들 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재난에 취약하잖아요? 화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목재를 짊아먹는 여러 가지 해충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후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노약자들,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불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사찰에 접근하는 계단이나 길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보행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보면.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20번에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현 시점에서는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밑에 당구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이해를 해요. 이것은 조계사 경내 화재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의 것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안동 고운사 같은 데 이런 데는 저희가 법이 없어도……

지금 재해복구비 아닌가요, 이것? 20번.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안동 같은 경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계종 불교문화역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을 재해지원비로 복구 지원하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이것 국가유산청에서는 5억 증액 안전으로 올라와는 있어요. 아까 봤어요. 국가유산청에서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지금 이 불교문화역사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오경 위원 여기 20번에 관련돼서.

아니, 불수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위기로 관련돼서 저희가 재해복구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그것은 재해·재난법에 따라서 재해복구비로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지금 조계사의 사찰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 불교문화역사관으로 일반 종교문화시설인데 이것을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재해복구비로 지원하는 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예.

아까 전기요금 지나가서 그런데요, 전기요금 관련돼서요 보물이나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전통사찰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전기요금 요율 같은 것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상당히 이렇게 해서 조정까지 해주게 되면 다른 천주교나 기독교 다 같이 해 줘야 되는 사안들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정돼 있는 전통사찰이 한 1000여 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300개소 정도는 유산청에서, 보물이나 유물이 있는 경우는 유산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330개소에 연간 한 37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정된 전통사찰은 700여 개되는데 그 사찰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전통사찰하고 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예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하는 것들은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 사찰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훨씬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그 외의 나머지 전통사찰 중에서 유산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찰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하여튼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항목, 그러니까 20번 재해복구비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세워도 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더 이상.....

○**조계원 위원** 조계종에서 요구한 이것만 50억 원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정책국장님 나오시고.....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7쪽입니다. 콘텐츠정책국.

21번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역사업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는 2회 추경 증액분 25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22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웹툰·웹소설 소비쿠폰 지원 중에서 웹툰·웹소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6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영상산업 육성 중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26년 완공을 위하여 올해 부족한 공사비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웹툰IP첨단 클러스터 조성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을 위하여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23번 CT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 설립 연구 관련해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4번 Unite4Peace 콘서트 개최를 위하여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21번 K-콘텐츠 펀드 출자에 대한 착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펀드를 여러 개를 구성해 왔는데 통상 첫해에 약간 부진하지만 2차 연도에 보통 50%, 60%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고 3차 연도 이후에 가게 되면 펀드 결성금액이 대부분이 다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 2023년까지 했던 부분들이 이미 80% 이상 투입이 다 됐고 지난 2024년에 조성한 것만 26%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펀드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자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도까지 이어서 투자금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뒤쪽에 있는 다른 사업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기획 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

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펀드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는 방안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저희가 펀드 결성 자체는 연말까지 전혀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결성 이후에 통상 한 2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만든 것들은 연말이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펀드 결성금액들은 아마 내년도에 대부분이 다 또 투자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상 말고 다른 방안은 없으신 거지요, 딱히?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 투자금이 고갈되어 있어서 굉장히 갈급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종오 위원 예,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위원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펀드가 처음에 조성이 돼서 결성이, 정부가 마중물을 투자하면民間에서 돈을 더 끌어 나와서 그것으로 영화계 제작·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투자기간이 1년 단년도가 아니라 4년, 5년입니다. 4년, 5년 동안 나눠서 연차별로 투자계획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해 10월 정도에 결성이 되더라도 그게 향후 4년 동안 계속 연차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3·4년 차에 거의 100% 투자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영화계의 제작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소위원장 민형배 감액 없이 가자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요 22번,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22번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 22번, 지금 720만 장 소비쿠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급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웹소설·웹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이것은 이미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이 있는 산업 영역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 왔고, 플랫폼에서 5000원을 자부담하고 저희가 5000원을 지원해서 1인당 1만 원 정도, 1만 원이면 보통 한 번에 100원씩 지출을 하기 때문에 100회 정도 분을 볼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자들이 1만 원 상당의 웹툰이나 웹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되는 부분입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선착순으로 1만 원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나는 저번에 영화도 그렇지만서도 굉장히, 관련 생태계가 좀 더 맞춤형으로 더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웹툰·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가들이 많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아주 유명 작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높은 반면에 대부분의 신진 작가들은 이를 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또 진입장벽이 높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착순으로 풀다 보면 결국은 인기 있는 그런 웹툰·웹소설 인기 작가 위주로 혜택이 더 돌아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신진 작가들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작가들은 크게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또 보면 작가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물론 크게 스플로버(spillover)가 제작으로도 갈 수 있지만서도 중소 제작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공무원 편의 위주로 설계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작가들한테, 그 업종에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관련 플랫폼 업체들과 같이 준비를 해서 신진 작가들이나 중소 제작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집행 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3번 CT 기반조성(R&D)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이것 오랫동안 해 오던 거라서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김승수 위원 원래 CT 이게 광주에 CT 콘퍼런스 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게 GIST에 이미……

○소위원장 민형배 그게 아니고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가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을, 문체부에 지금 문화관광연구원만 있는데 특이하게 콘텐츠, 그러니까 CT연구원, 그러니까 문화기술연구소 이쪽이 없어서 AI CT연구원이 필요하다, 국책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성 설립 연구용역을 일단 해 보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관련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가 폐기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었고요, 임기 만료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도 또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고. 또 GIST에서도 그동안에 CT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차제에 연구원 형태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CT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대구에서도 별씨 오래됐습니다. 오래 전에 대구에 이 부분을 국립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타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졌단 말이지요, 옛날에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성이라든지 또 어디에 두는 것이 적당할 건지……. 이건 지금 그러면 전담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가 광주에 입지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걸 당연하게 전제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단 콘텐츠진흥원에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24번 Unite4Peace 콘서트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도 1차 추경에서 들어간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때는 주로 지역에서 진행하는 지역축제 기반으로 해서 사업비, 문화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조금 별개로 세계 청소년들이 유엔과 연계해서 하는 포럼이라든가 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연, 축제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이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APEC 기념 콘서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 전에……

○**임오경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중복사업으로 이게 좀 비쳐지니까.

○**소위원장 민형배** 중복이요?

○**임오경 위원** 콘서트하고 관련된 문화행사였거든요, 그때 1차에서 추경에 올려줬던 게.

○**소위원장 민형배** 예, 그런데 그게 다 사라졌으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 1차에서 해 줬다니까요, 저희가 심의 거치지 않고 일단.

○**소위원장 민형배** 지난번에?

○**임오경 위원** 예. 거기에 그때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지난번에 유사한 사업이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중복 우려는 있는데 지난번에는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포럼하고 연계해서 주로 청년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참여 국가에 있는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축제를 벌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에서는 조금 더 차별성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지역 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데 이게 왜 청년으로 문화행사가……

우리가 콘서트 같은 게 청년으로 제한되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청년포럼이라는 단체가 유엔 산하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국내 방송사라든가 몇 군데가 같이 청년포럼을 준비를 해 왔고 그와 연계된 행사로서 APEC을 기념해서 APEC에 있는 각 국가들의 청년들이 한국에 한번 다 모여서 인류의 미래도 이야기를 하고 관련된 축제를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이 제안이 된 부분입니다.

○**임오경 위원** 청년들이 그러면 몇 명이나 오는 걸로 지금 확정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아직 인원 확정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굉장히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PEC과 관련해 가지고 경북에서도 케이팝 콘서트를 하겠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초청하는 케이팝 아이돌이나 스타들 출연료예요, 거의 다 보면.

그게 일회성인 건데……

우리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사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문화 관련 사업들에 1억~2억 예산 확보하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몇 명을, 40억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아니라 국비만 40억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비 매칭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것은 지방비 매칭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40억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콘서트를 며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콘서트는 하루 진행이 되고 콘서트와 연계된 부대행사가 청년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승수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 콘서트 하는데 40억을 국비로 투입한다, 그것도 추경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APEC이라고 하는 행사가 워낙……

○김승수 위원 APEC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지요, 보면. 얼마나 이게 연결이 되겠어요, APEC 행사하고 이것하고. APEC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그 주변 지역의 관련된 APEC을 위한 문화행사에 40억이 들어가느냐……

○소위원장 민형배 출연료는 그중에 8억 3000밖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APEC 뮤직페스타라고 해서 세계적 케이팝 출연진과 APEC 회원국 여성 음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축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화창조산업의 대표 콘텐츠인 케이팝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 APEC으로서 10월 APEC 정상회의를 집중 홍보한다고 해서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청년들만 또 청년 행사를……

국제청년포럼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청년포럼까지는 이해를 해요, 저는. 그런데 그 외에 콘서트나 문화행사를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청년들의 국제청년포럼을 하고 난 후 문화행사는 우리가 나누지 말고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콘서트 따로, APEC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벌써 콘서트가 다 잡혀 있는데 콘서트 따로 또 여성 따로, 청년 따로 이렇게 콘서트를 합니까, 페스티벌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국제청년포럼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전 세계적으로 와서 포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서로 공유하고 너무나 좋은 포럼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외적 문화 관련돼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중복사업으로 너무나 중복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제가 조금 설명은 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서면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로 치면 다보스포럼, 도하포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형, 청년판 다보스포럼, 도하포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대행사로 콘서트도 있을 뿐이고요. 원래 이것은 유엔하고 같이해서 이때 APEC 참여하는 국가의 청년들이 약 2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 숙박 공간도 없어요.

○소위원장 민형배 아닙니다. 이것은 제일 큰 서울에서 합니다, 콘서트.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국제청년포럼은 너무나 좋다니까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부대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콘서트와 페스티벌 이런 것 케이팝 관련돼서 예산을 벌

써 1차적으로 반영을 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APEC 여성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축제를 나누고 청년포럼과 관련돼서 부대시설을 나누고 또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APEC 회원국 사람들에게 별도로 또 하나의 무대를 만들고 이렇게 막 나눌 필요 까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민형배** 제가 다른 것까지는 몰랐는데 APEC 예산이 대략 한 4000억쯤 되더 만요. 그런데 그중에 이게 한 1% 정도 해당되는 것을 좀 늘려서 청년들이 한국을 찾고 그 과정에서 케이팝을 비롯해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고. 제가 K-아이셔티브 위원회를 해봤는데요, 이 과정이 저는 APEC도 그렇지만 우리 문화, K-컬처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고, 좀 중장기적으로……

○**진종오 위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콘서트 관련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최근 사례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올림픽공원에서 한류페스타를 개최했는데요. 거기 전체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 콘서트 자체에만 한 4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1만 70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1만 7000명이 쓴 금액을 저희가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430억 정도를 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 지출한 게 40억 정도인데 그 10배 정도되는 관광수지 부분에 관한 것들이 엄청 또 확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특히나 APEC이라고 하는 큰 명분이 생겼다라면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각국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MICE 산업 개념으로 해서 관광수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국제청년포럼 주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어디 부처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 국제청년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이 부분은 저희가 있고 외교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청년포럼의 하나의 부대행사로 콘서트를 하는데 국제청년포럼 주관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을 테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청년포럼 자체는 외교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행사는 아니고요. 유엔 산하에 있는 연구소하고 국내에 있는 방송사하고 아마 연계를 해 가지고……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제청년포럼은 APEC 할 때마다 계속 같이 연계해서 개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이전에 국제청년포럼이 어디서 개최됐습니까? 개최된 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이런 형태로 개최되는 건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누가 2만 명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청년포럼에는?

○**소위원장 민형배** 이번에 유엔기구에서 이걸 하는데 창설을 하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요. 2만 명이 참여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소위원장 민형배** 콘서트에도 1만 7000명이 왔다는데 2만 명이 참석하지요.

○**김승수 위원** 관객이 아니고 금방 민형배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 국제청년포럼에 2만 명 정도 오는 행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콘서트에. 청년포럼에는 5000명 정도 참여를 한다는 거고.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40억을 투입해서 콘서트를 하면 2만 명이 안 오면 이상하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임오경 위원** 원래 주는 APEC인 거지요? APEC에 관련돼서 지금 국제청년포럼이 이번에 한번 열린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걸 계기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계기로 열린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임오경 위원** 그럴 때는, 저는 이렇습니다. 국제청년포럼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APEC이 메인이고 청년포럼이 이번에 서브로 하나 더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APEC에 관련돼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콘서트도 하는데 이번에 청년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텐데 이게 무슨 세대 갈라치기도 아니고, APEC이 메인인데 메인 행사를…… 지금 꼭 청년포럼이 메인 같잖아요, 막 듣다 보니까.

○**김승수 위원** 그리고 차관님, 그러니까 국제청년포럼 주관 방송사는 어느 방송사에서 같이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민형배** 이것은 방송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송사하고 같이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문체부 산하의 기관에다가 이걸 위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특정 방송사를 전제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위원장 민형배** 그래서 거기서 공모를 하게 되겠지요.

○**김승수 위원** 지금 케이팝 콘서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언론사나 굉장히 많아요. 올 때마다 아예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그런 행사를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지방에서 개최할 경우에 지방비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지방비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별도 사업 꼭지 달아 가지고 본 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반영하기가 힘든데 문체부 주관 사업도 아니고 주관 행사도 아니고 어디 매칭되는, 민간기업이나 민간업체나 아니면 지자체에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그냥 문체부에서 40억을 그것도 추경에 잡아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보면은.

○**임오경 위원** APEC 관련돼서 지금 뮤직페스타 이것 다 지방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기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기존에 계속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소위원장 민형배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꾸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APEC이 열립니다. APEC의 부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엔기구하고 같이 국제청년포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보스포럼이나 도하포럼처럼 청년판 다보스포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창설하는 겁니다, APEC 기념으로 해 가지고. 창설이 되면 이제 해마다 개최가 되겠지요, 청년포럼이.

그런데 이번에 APEC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포럼의 부대행사로, 연관 행사로 콘서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고 포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엮여 있고 그중에 지금 콘서트 지원하는, 청년포럼 지원하는 것을 문체부의 다른 기구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관련된 쪽의 의견들이 대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이 오래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은 문체부 주관 사업도 아니라는 거지요. 문체부 주관 사업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애초에 그러면 국제청년포럼을 그냥 주관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들이 있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소위원장 민형배 문체부가 주관하는 사업 맞고요.

○김승수 위원 또 APEC 관련 사업이라고 그러면 전체 APEC 조직위에서 하나의 APEC 관련 사업으로 이게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그런 건 또 이해를 하겠어요,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유엔에 유엔사회개발연구소라고 있네요, 유엔RISD라고 해서. 유엔사회개발연구소가 주관해서 국제청년포럼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APEC이 열리는 한국에서 APEC이 열리는 기간에 맞춰서 이 청년포럼을 창설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해 가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 딱 포럼뿐만 아니라 몇 가지 부대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체부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문체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문체부의 기관, 산하기구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체부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하게 될지 유엔이쪽하고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쪽에서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하겠지요.

○김승수 위원 국제청년포럼, 문체부하고 지금 국내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 공동 주관합니까, 국제청년포럼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포럼 자체는 그 기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후원을 하는 거지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 정부 중에서 국제청년포럼을 같이 주관하는 그런 부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외교부하고 계속 협의는 했었던 걸로 들었는데 최종적인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제가 알기로는 APEC 준비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준비기획단.

○소위원장 민형배 준비기획단에서 합니다, APEC 준비기획단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APEC 예산인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APEC에서 준비 과정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 문화행사는 저희가 기존의 문화행사 틀을 조금 더 바꿔서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문화행사는 지금 케이팝 문화행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충분히 문화행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경주 같은 경우는 다 매칭사업인데 이것만 저희가, APEC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해 주냐.

국제청년포럼 창설하는 것 저는 찬성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APEC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 그런데 왜 문화행사를 별도로 나누냐, 기존에 하려고 했던 예산 확보되어 있는 문화행사 예산을 가지고 같이하면 된다.

왜 세대를 갈라 치기 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그럴까요?

그러면 24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0쪽입니다. 저작권국.

25.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과 관련하여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총 9개 업종에 6개월 분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50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연욱 위원 지금 9개 업종 자체가 지원 비율이 다 다르지요? 9개 업종이 체력 피트니스센터, 커피전문점, 9개 업종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왜 다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작권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저작권료를 내는 게 시행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요율이 달라서 그런 것도……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율이 달라서 그 요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정연욱 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개 저작권협회인가요, 위원회에서 아마 일일이 체킹해 가지고 체력단련장 이런 데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말씀을 드린다면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쪽은 인식도가 낮아 가지고 잘 안 거둬졌습니다. 그래서 음저협 쪽에서 이 부분들을 형사 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받아……

○정연욱 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그래서 3000개 업소가 그렇게 형사 고소를 당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차제에 그러니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인식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동안 음악저작권협회나 이쪽에서 하는 약간의 과도한 형사 고소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었나요? 그런 측면은 전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그래서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하지 말고 교육을 해라, 교육을 해서 좀 계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부가, 문체부가 그쪽 협회나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권유하거나 하는 권한이 일체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러니까 권리행사를 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탁관리 단체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통해서 좀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연욱 위원 아니,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술하게 있는, 여러 체력단련장이나 모든 커피전문점이나 무수한 피해 사례가 워낙 많아서 과연 그러면 협회가 어떤…… 모든 대상을 또 체킹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지역마다 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은 가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유통 지원 6개월 정도 한다고 한들 이게 해소가 되냐 이거지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저협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신탁 관리 단체는 본인들이 권리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약간의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마침 이번에 민생 지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라도 본인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께 그렇지만 당신들이 이것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되새겨 주는 약간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한다라면 큰 금액 아닌 금액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환기를 시켜 줘서 차제에는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정연욱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은 신청하면 다 받아 주는 겁니까? 6개월 치를 다 줍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아니요, 저희……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하면 다 주는 겁니까, 모든 업소가 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아니, 저희 업소가 정해져 있는데요. 체력단련장은 8000개, 커피전문점 이런 것은 2만 개……

○정연욱 위원 숫자는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하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개소에 맞춰서 저희 예산 부분들은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사람도 충분히 있겠네요, 선착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연사용료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퍼지게 될 겁니다. 말이 퍼지게 돼서 어쨌든 인식을, 내야 한다라는 인식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아니, 이게 상당한…… 업자들이 소상공인들, 대부분 자영업자들인데 이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한 피해 사례가 많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방치되다 보면, 이게 지금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악 잘못 틀었다고 지금 전부다 이렇게 형사 고발·고소를 당하는 시점이 돼 버리니까, 전과자가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래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대충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한 달에 그게 면적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치 정도를 얘기하면 8000원 정도 돼서 5개월이면 5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치를 하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다음, 미디어정책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안 끝나면 식후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남은 것들이 대부분 수용이고요, 일부 수용만 1~2개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수석님, 미디어정책국부터 진짜 핵심만 요약해 가지고 바로 해 주세요. 대부분 다 수용이기는 한데……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21쪽 미디어정책국.

26. 출판산업 활성화.

내역사업 출판산업 기반조성 관련해서 100억 원 증액과 내역사업 출판산업 유통 지원 관련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내역사업 출판산업 유통 지원과 관련해서 K-북의 해외진출 사업 확대를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2건 다 수용 의견이고.

다만 여기 출판산업 기반조성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주로 중소 규모 서점을 중심으로 100억 정도 기획을 했었는데 관련 단체들 협의를 하다 보니까 대형 유통사를 통해서도 지역 독서 진흥 쪽에 충분히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한 200억 정도로 증액 반영을 시켜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좋고요, 200억 증액시키는 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앞서 웹툰·웹소설처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중소 서점에 지

원할 것이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그 두 가지는 이원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서점으로만 갈 경우에는 책 종수 자체가 너무 제한이 되고, 특히 동네 서점분들이 대부분 다 참고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오히려 독자들의 권리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대형 서점,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을 하는 서점 쪽하고 그다음에 중소 규모 서점들을 갖다가 이원화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지역 출판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해서 설계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콘텐츠정책국.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3쪽 콘텐츠정책국 소관입니다.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영상콘텐츠산업 거점도시 조성 그랜드플랜 연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반영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문화정책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4쪽 지역문화정책관.

1. 문화중심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충장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내역사업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25쪽입니다.

내역사업 국제학술대회 연계 K-로컬 컬처 확산과 관련하여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3건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건 다 작년의 증액 의결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6쪽 문화예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 한스타일 육성 지원.

내역사업인 한복분야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27쪽 2번 예술창작 지원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공연예술 창작육성과 관련해 3억 원 증액 그리고 3번 예술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DIMF 뮤지컬 아카데미 관련하여 1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4. 문화예술 향유 지원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미술관전시관람료 관련해서 3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쪽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1번 의견 수용이고.

2번의 경우에는 일부 수용 의견인데 이유는 이게 2024년도에 국비 지원 규모가 1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만 지원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3억 원으로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원 외에 시비가 2.4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준해서 집행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 하나 질문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복 20억, 캠페인 증액시키는데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찾아가는 한복 상점이라고 해서 한복업체들 한 100개가 모여 가지고 액스포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행사가 있는데 서울에서 했을 때 이게 대성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도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저희가 지역 두 군데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PEC이 개최되는 바로 전 주에 한복문화주간을 10월 21일~27일까지 하면서 저희가 예쁜한복입기대회라든가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전자의 지역구에 꼭 대구를 포함, 지역에 대구를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대구 더워서 안 된다고……

○소위원장 민형배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섬유나 이런……

○김승수 위원 대구보다는 어쨌거나 APEC이 경주 또 송도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경주 쪽에도 한복…… 정상들, 굉장히 세계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도 뭔가 한복을 알릴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민형배 제가 알기로는 한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한복문화주간에 그 행사를 경주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갑시다.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못 하고 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4번 의견도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9쪽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영화 창제작 지원 관련하여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에 10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 3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 영화유통 지원과 관련하여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3억 7000만 원과 10억 원 증액 의

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이 부분은 저희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한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면 합리적인……

○**소위원장 민형배** 영화 창제작 지원이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아니,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입니다. 이게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의 기준 사례를 검토했을 때 하반기에 대략 10억 정도면 저희가 한 2500만 원씩 해서 40개 정도 업체에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조계원 위원님만 오케이 해 주면……

○**김승수 위원** 조계원 위원님 지금 30억인데……

○**임오경 위원** 정부 의견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김승수 위원** 차관님,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국내영화 제작이 완전히 침체돼 갖고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계원 위원** 지금 차기작인가요, 창제작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차기작 기획제작 부분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 지급단가를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주는 지원단가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당초에 2000만 원 정도씩 지원됐던 것들을 저희가 2500만 원으로 일부 좀 높여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수 위원** 영화제작자들 재정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거나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늘려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것은.

○**소위원장 민형배** 30억과 10억 사이, 20억으로 하자는 의견이시네요.

○**김승수 위원** 너무 많이 줘도 이게 또 제작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 감당을 못 하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그러시면 김승수 위원님 의견을 같이 감안을 해서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에 10억 하고 기획개발 지원에 10억 해서 2개를 나눈 다음에 각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조정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승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조계원 위원** 그 정도가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예.

○**조계원 위원** 하시지요.

○**김승수 위원** 실제 폐업하거나 거의 문 닫는……

○**소위원장 민형배** 어떻게요, 20억?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예. 20억인데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에 10억,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에 10억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오케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씩.

그다음에 영화유통 지원, 정부 쪽 의견이요. 마지막이요, 30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영화유통 지원 두 가지 건인데 서울독립영화제 관련된 부분은 10억 증액 요청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의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을 때 금액을 조금 낮춰서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간 지원했던, 2020년부터 23년까지 보면 한 3억에서 3억 7000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높은 수치인 3억 7000 정도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다른 독립영화제나 군소 영화제들의 지원 금액이 보통 1억대이기 때문에 10억이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10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5억 정도 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걸 계속 지원을 하던 건데 지금 삐감시켜서 왔는데…… 6억 얼마가, 7억인가가 정상인데 딱 그것에 맞추는 것보다 영화산업을 살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영화 차기작 기획 이렇게 다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독립영화도 이번 기회에 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금 부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 한 5억 4000 정도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할 때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는 느낌이고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10억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3억 7000인데 조금 써서……

○김승수 위원 네임밸류 봐서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비교해 보면……

○조계원 위원 4억 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예, 4억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4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5억을 해 주자고 했는데……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4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대의견이요, 학교예술강사·스포츠강사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 부대의견 넣었고요.

그다음에 쿠폰 관련해서 부대의견 넣었고요.

그다음에 영화 관람 관련해서 이것 부대의견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지원 관련해서 부대의견 넣었습니다, 박수현 위원님이 주신.

플러스해서 지금 나눠 드린 부대의견,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전통예술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유산청 사업과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19쪽 Unite4Peace 콘서트 이게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역신문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정책질의해 주셨던 요지 부분에서 사무국 역할 강화 방안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2026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민형배 추경은 안 되고 다음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2026년도 예산에.

○소위원장 민형배 위원님들 어찌하세요?

○조계원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소위원장 민형배 좋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안 끝내면 넘어갑니다.

19쪽, 24번 Unite4Peace, 아까 청년포럼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문체부 사업으로 해라…… 그러니까 차관님, 문체부가 주관을 하시지요, 이 사업을. 그래서 그걸 위탁을 하시든 공모를 하시든 그것은 그다음이고.

지금 세계청년포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다만 콘서트를 하는데, 포럼도 하고 콘서트를 하고 그러는데 이 콘서트 하나에 이렇게 40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콘서트만 4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엔사회개발연구소하고 같이해서 문체부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든지 주체를 문체부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이것을 APEC의 부대행사로 한다고 했을 때 청년포럼을 창설하면 앞으로 지속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K-컬쳐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지금 아마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께 제공을 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그 자료를 제공해서 일단 이렇게 가안으로 마련해 놓고……

김승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문체부가 주도하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은 APEC 부대사업으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좀 봐주시지요.

○김승수 위원 저는 문체부 주관 사업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주관만 문체부가 하고 실행은, 집행은 위탁을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지요.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을 APEC 조직위의 관련 사업하고 통합하든지 그쪽하고 연계하든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APEC 조직위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APEC에 저희 문체부 직원들 여러 명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없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 지역신문 지원 관련돼서만 하나 이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방위하고 방통위원회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립 당시 250억 규모로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원을 여기다 숫자를 지정해 버리게 되면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금 저희가 방통위하고 과방위하고 논의 중이니 논의가 끝난 다음에 부대의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민형배 부대의견인데요?

○임오경 위원 부대의견인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금 250억 부분은 저희 쪽 의견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로 저희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형배 그래서 그 부대의견은 별……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는 걸로……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하고요. 국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저희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시비할 바가 아니고 그걸 여기하고 연결시킬 것도 아니지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저희가 과방위 쪽으로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넘깁니까, 저희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임오경 위원** 법은 문체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약에 들어가 있는……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이것은 국정기획위에서 검토하는 건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라서 안 넘기기 위해서……

○**소위원장 민형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국정기획위 논의 사항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지요, 저희는 지금 예산, 예결소위를 하고 있는데.

○**조계원 위원** 250억 이건 부대의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민형배** 예.

○**임오경 위원** 이 250억도 없어지는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소위원장 민형배** 그것은 그쪽에서 아예 없애자고 넘어오면 다시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뭔 의견을 내면 정부 의견이 될 것 아닙니까? 정부 의견이 다시 오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부대의견이 들어가도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차관님,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팬찮습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제가 지금 혹시 거꾸로 말씀드리거나 그런 것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맞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에서 정부 쪽의 의견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충분히……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250억 수준으로'라는 말만 뺄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그 부분은 정책질의 요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정부 의견이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설명 내용이라니까요, 부대의견이 아니고.

○**소위원장 민형배** 정부 의견이 아니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소위원장 민형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

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승수 김윤덕 민형배 양문석 임오경 정연숙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전완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제2차관 장미란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